

체리밸리사(Cherry Valley) 원종오리 사양관리 [최신판]

원종오리들은 단일일령의 농장에서 이상적으로 수용가능하나, 그러나 일령별 계군에서도 적합한 관리시 더욱 훌륭한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 원종오리들은 성장단계에 따라 다른 축사에서 사육이 가능하며, 또는 단일령의 축사에서 사육을 해도 문제가 없다. 원종오리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기후는 추운 겨울과 뜨거운 여름이 있는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영국의 온대성 기후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체리밸리는 뚜렷한 계절상의 차이가 있는 기후와 환경에서 최적으로 오리들을 사육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설계된 건물과 기기들을 사용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영국의 축사 설계는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

⊗ 수용 조직 (Accommodation Organisati)

원종오리는 질병 전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생산지역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격리시켜야 한다. 적어도 3km 이상은 거리를 두는 것이 적합하다. 적정 거리는 적어도 3km 이상이 되어야 적합하다.

농장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격리하려면 각 농장이 단 한 일령군만 수용할 때 가능하다. 비록 이 원리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종종 불가능할 수 있고, 적절하게 오리들을 관리하면 여러 일령별 계군에도 뛰어난 생산성을 가능하게 한다.

간혹, 적은 원종오리 집단에서, 부화장이 농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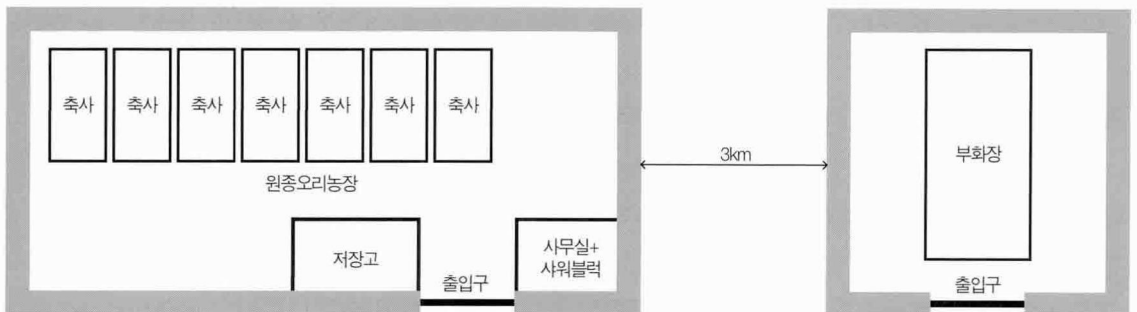
같은 공통구역에 있기도 한데, 반드시 직원들도 농장으로부터 격리·분리되어야 한다. 체리밸리는 종축이 1일령부터 도태시까지 동일 축사에서 사육할 것을 추천한다.

궁극적으로, 농장 내에서 축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육, 배속에 알을 품고 있을 때 산란시 등의 경우 각 단계별로 다른 축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수용의 적합성(Suitability of Accommodation)

축사는 가금류(원종오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종축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포식자와 기후

【원종오리 농장 모식도】



상태, 그리고 잠재된 병원균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주로 야생조류에 의해 전파된다. 그러므로 모든 건물과 축사들은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조류를 차단해야 한다. 축사는 수용할 가금류의 숫자에 맞춰 충분한 바닥 공간과 환기를 제공해야 하며, 일조량을 조정함으로써 그에 맞춰 종축의 생체 시계도 조절한다.

또하나 중요 사항은 축사의 바닥이 효과적인 소독과 쉬운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야 한다.

☞ 물의 이용과 바닥 상태(Water Availability and Floor Condition)

물새나, 오리 등의 경우 물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적절히 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매우 축축한 상태를 만들기도 한다.

축사 내에서 최적의 바닥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수대를 지면에서 약간 높은 판 위로 위치시키거나(알을 품고 있는 기간 이후) 음수대의 바닥을 망(구멍뚫린 망)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가끔은 음수대 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음수축(원종오리)을 컨트롤 하고 흘러나온 물이 아래로 빠지도록 함으로써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음수대에 접근하려면 비탈진 경사로를 통해 올라가도록 설계하고 음수대는 낮고 단단한 울타리로 경계를 지어야 하는데 이는 음수축으로부터 물이 튀어 주위가 지지분해지는 것을 막는다.



살구꽃은 어느새 푸른 살구 열매를 맺고

- 詩人 문태준 -

외떨어져 살아도 좋을 일
마루에 앉아 신록에 막비 듣는 것 보네
신록에 빗방울이 비치네
내 눈에 녹두 같은 비
살구꽃은 어느새 푸른 살구 열매를 맺고
나는 오글오글 떼 지어 놀다 돌아온

아이의 손톱을 깎네
모시조개가 모래를 뺏어놓은 것 같은 손톱을 깎네
감물 들듯 번져온 것을 보아도 좋을 일
햇숨 같았던 아이가 예처럼 손이 굵어지는 동안
마치 큰 징이 한 번 그러나 오래 울렀다고나 할까
내가 만질 수 없었던 것들
앞으로도 내가 만질 수 없을 것들
살구꽃은 어느새 푸른 살구 열매를 맺고
이 사이
이 사이를 오로지 무엇이랴 부를 수 있을까
시간의 허끝에서
몽곳이 느껴지는 슬프도록 이상한 이 맛을